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	<h1>보도자료</h1>	대한민국 재도약의 힘, 창조경제
배포일시 2016. 9. 1.(목)	담당자 미래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재정팀장 최문기, 사무관 양영준(☎ 02-2110-2231) 문체부 재정담당관 과장 고육성, 사무관 진재영(☎ 044-203-2233)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과 과장 진종욱, 사무관 이원규(☎ 044-203-4513)	

'17년도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15.3조원 투자

- 총예산 증가율 3.7%보다 2배 이상 높은 7.6% 증가 -

- ☞ 창조경제 플랫폼 생태계 활성화, 기술사업화 확대 등 미래성장동력 기반 강화에 7.6조원 지원
- ☞ 미래성장동력·신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 등 미래성장동력 창출 지원에 7.7조원 투입

□ 미래창조과학부, 문화체육관광부, 산업통상자원부는 '16.9.1(목) 합동으로 2017년 예산안의 5대 투자 중점* 중 하나인 「미래성장동력 창출 분야 예산안」의 내역을 발표하였다.

* 일자리 창출, 미래성장동력 창출, 경제활력 회복, 민생안정, 국민안심사회 구현

- 정부의 미래성장동력 창출 예산은 ①미래성장동력 기반 강화 7.6조원, ②미래성장동력 창출 지원 7.7조원 등 총 15.3조원 규모로 금년대비 1조 767억원(7.6%) 증가된다.
- 동 예산안은 벤처·창업 등을 통한 창조경제 생태계 뒷받침, 문화·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통한 문화융성 지원 등 그간의 성과를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, R&D 전략적 투자 강화 등 미래성장동력 기반 강화와 창출 지원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.

2017년도 미래성장동력 창출 예산안

1. 미래성장동력 기반 강화 ('16) 7조 1,326억원 → ('17안) 7조 6,088억원

<p>창조경제 거점 기능 강화 ('16) 450억원 ▶ ('17안) 783억원</p>	<p>R&D 지원 및 인력양성 ('16) 4조 4,626억원 ▶ ('17안) 4조 7,160억원</p>	<p>기술사업화 활성화 ('16) 4,466억원 ▶ ('17안) 4,582억원</p>
<p>지역 창업·전략산업 육성 ('16) 5,598억원 ▶ ('17안) 6,072억원</p>	<p>문화융성 기반 강화 ('16) 1조 6,185억원 ▶ ('17안) 1조 7,491억원</p>	

2. 미래성장동력 창출 지원 ('16) 7조 865억원 → ('17안) 7조 6,870억원

중점 지원분야
<p>19대 미래성장동력 조기 성과 가시화 ('16) 1조 2,038억원 ▶ ('17안) 1조 3,004억원</p>	<p>미래성장유망산업 집중육성 ('16) 1조 243억원 ▶ ('17안) 1조 1,115억원</p>
<p>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 ('16) 2,253억원 ▶ ('17안) 3,298억원</p>	<p>글로벌 문화·콘텐츠 산업 주도 ('16) 3조 7,443억원 ▶ ('17안) 4조 78억원</p>
<p>ICT융합혁신을 통한 신산업 육성 ('16) 6,473억원 ▶ ('17안) 6,571억원</p>	<p>중점지원분야 R&D 전략적 투자 강화 ('16) 1조 4,451억원 ▶ ('17안) 1조 5,468억원</p>	
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
<p>('17안)신규 300억원</p>		

① 미래성장동력 기반 강화

(’16) 7조 1,326억원 → (’17안) 7조 6,088억원

□ 미래성장동력 기반 강화는 R&D 기술사업화, 창업 플랫폼 기능 강화 및 지역특화사업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고도화하는 것으로서 관련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.

① 신진연구자 대상 ‘생애 첫 연구비’ 과제 1,000개 신설, 공대 혁신방안 이행, SW중심사회 현장착근(SW중심대학 20개, SW선도 학교 1,000개) 등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우수인재 육성을 집중 지원한다.

* R&D 지원 및 인력양성 : (’16) 4조 4,626억원 → (’17안) 4조 7,160억원

②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본격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핵심기능 및 인력 등을 확충하고,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글로벌 수준의 창업·혁신 허브로 육성하는 등 창조경제 거점 기능을 강화한다.

* 창조경제 거점 기능 강화 : (’16) 450억원 → (’17안) 783억원

③ 또한,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사업을 확대(2,523→3,136억원)하고,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사업(145억원)을 신설하여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규창업, 지역특화발전, 그리고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한다.

* 지역 창업·전략산업 육성 : (’16) 5,598억원 → (’17안) 6,072억원

④ 연구소기업 등 기술창업 확대(’17년 200개 설립)로 제2의 성공 사례를 만들고, 기술이전→후속R&BD→기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에 범부처가 협업하며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·활용 지원(40억원)을 신규로 추진한다.

* 기술사업화 활성화(중기청 사업 포함) : (’16) 4,466억원 → (’17안) 4,582억원

⑤ K-culture Valley와 K-Pop 아레나공연장 등 문화창조융합 벨트의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, 지역·글로벌 확산을 위해 지방 문화창조벤처단지와 글로벌 허브를 조성한다.

* 문화융성 기반 강화 : (’16) 1조 6,185억원 → (’17안) 1조 7,491억원

② 미래성장동력 창출 지원

(’16) 7조 865억원 → (’17안) 7조 6,870억원

□ 미래성장동력 창출 지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19대 미래 성장동력 조기성과 가시화, ICT 및 문화·콘텐츠 분야의 신산업 육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련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.

① 19대 미래성장동력 조기성과 가시화 (’16) 1조 2,038억원 → (’17안) 1조 3,004억원

○ 상용화 근접 기술개발과 실증을 위해 19대 분야 투자를 금년 대비 8.3% 확대하고, 스마트카, IoT, 무인기 등 산업화 속도가 높은 10대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.

② 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 (’16) 2,253억원 → (’17안) 3,298억원

○ ’16.9.1일 지능정보사업추진단을 출범하고,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’16.10월에 발표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, 내년도 관련 예산을 금년대비 46% 증액한다.

○ 4차 산업혁명의 新생산요소로 부상한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신규서비스 모델을 발굴, 실증하는 지능정보서비스 확산 사업이 50억원 규모로 신설되며,

○ 해외에 비해 부족한 기술적·산업적 기반을 다지고 국내 지능정보산업을 붐업(Boom-up)시키기 위한 ‘지능정보산업 인프라’ 조성 사업이 70억원 규모로 신규 추진된다.

○ 로봇분야 공통기반기술 개발, 유망 로봇품목 상용화 개발과 더불어 인공지능 융합 로봇분야 지원 등 로봇산업 핵심기술 개발사업에 금년대비 162억원 증액된 884억원을 지원하며,

○ 스마트카 개발에 98억원이 증액된 370억원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무인이동체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지원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.

③ ICT융합·혁신을 통한 신산업 육성 ('16) 6,473억원 → ('17안) 6,571억원

- ICT기술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금년 5월에 발표한 「K-ICT 전략 2016」 이행을 위해 IoT·빅데이터·클라우드 등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추진하며, 특히,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 사업을 210억원 규모의 별도사업으로 분리하여 중점 추진한다.
- 또한, 5G 기술 평창 동계올림픽 시연 등 ICT산업의 육성 기반을 구축하고,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3D프린터 등 ICT 융합 대표 제품에 대한 핵심 기술 개발을 확대 지원한다.
- 중소·중견기업의 공정 및 생산성의 혁신 지원을 위해 제조 현장에 ICT를 융합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을 314억원 증액하는 등 ICT 융합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.

④ 미래성장 유망산업 집중 육성 ('16) 1조 243억원 → ('17안) 1조 1,154억원

- 청정에너지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태양광, 풍력, 수소·연료전지 등으로 에너지 공급체계를 다양화하고 에너지 저장장치(ESS), 전기차 상용화 등 미션이노베이션을 추진한다.
- 플렉서블·스트레처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사업을 신설(116억원)하고, 글로벌 시장 수요맞춤형 시스템 반도체를 상용화하는 사업을 신규 추진(38억원)하는 등 기존의 주력산업을 고도화하는 한편,
- 소재분야 중소·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美보잉사 등 주요 산업체와 연계한 소재분야 공동기술개발에 나선다.

⑤ 글로벌 문화·콘텐츠 산업 주도 ('16) 3조 7,443억원 → ('17안) 4조 78억원

- 가상(VR)/증강(AR)현실 등 실감형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양대 지원 거점(상암DMC/일산빛마루)을 연계 운영하고, 첨단 게임 콘텐츠 제작지원과 콘텐츠 펀드 조성을 확대한다.

- 디지털 저작권 환경과 해외저작권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영상물 침해방지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하고, 민간 주도의 해외 보호체계 기반을 마련한다.
- 고품격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해 권역별로 핵심관광지(10개) 육성사업을 신규로 추진(240억원)하며,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국적 관광콘텐츠 개발을 신규로 지원(194억원)한다.
- 또한, 축구 스포츠클럽 디비전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 연계를 도모하며, 스포츠산업 거점을 추가 조성하는 한편, 스포츠편드에 대한 정부출자를 확대한다.

⑥ 중점지원분야 **R&D 전략적 투자 강화** ('16) 1조 4,451억원 → ('17안) 1조 5,468억원

- 한미약품의 성공 이후, 국내 제약사의 후속 성과가 기대되는 가운데, 신약후보물질 개발에 대한 예산을 270억원 증액하고,
 - 국내 바이오벤처 창업 수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276억원 규모 바이오창조경제 10대 활성화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등 바이오 신산업 분야에 금년대비 10% 증가한 5,215억원을 지원한다.
 - 올해 신규로 착수한 달 탐사 사업에 시험용 달 궤도선의 본체 부품 국산화 개발 및 시스템/본체 예비설계 착수를 위한 510억원이 증액되어 독자적 우주기술 확보가 기대된다.
 - 또한,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원천기술 확보와 더불어 글로벌 기후기술 현지화 지원사업(25억원)을 신규로 착수하며, 나노분야 7대 핵심 공백기술 확보를 추진한다.
- 이와 더불어, 국가발전 및 성장동력 확충과 직결되고, 사회문제 해결에 시급히 필요한 9대 분야의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신규로 추진하며 이를 위해 일단 300억원이 반영되었다.

- 동 프로젝트는 기존 19대 미래성장동력에서 더 나아가 범정부적 예산 등을 결집하여 속도감있게 혁신적 기술개발에 집중하고,
- 범부처 사업단장(PM)에게 사업관리 전권을 부여하는 등 신규 프로젝트 베이스 사업단 체제로 추진되며,
- 사업별 기술·시장 성숙도, 민관역량에 따라 전략적 역할분담으로 효율적인 민관 협업모델을 적용할 예정이다.

※ 예비타당성 추진 대상 5개 사업은 기획비 수준으로 반영되어 있으며, 하반기 중 에타 결과에 따라 예산 추가 반영 예정

- 미래성장동력 창출 예산이 국회 예산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,
 -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전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,
 - 예산 집행과정에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미래성장동력 창출 성과를 최대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
1 미래성장동력 기반 강화 ('16) 7조 1,326억원 → ('17안) 7조 6,088억원

(1) R&D 지원 및 인력양성 ('16) 4조 4,626억원 → ('17안) 4조 7,160억원

□ 신진연구자의 조기 정착, 중견연구자 집중 육성, 공동연구 활성화 등을 위해 기초연구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

○ 신진연구자의 연구기회 보장 및 조기 정착을 위한 '생애 첫 연구비' 신설(1,000과제, 300억원), 중견급 연구자 육성('16년 신규736과제 → '17년 신규1,780과제) 등 개인기초연구지원을 금년대비 1,021억원 증액

* 개인기초연구사업 : ('16) 6,075억원 → ('17안) 7,096억원

* 대학 기초연구 지원 : ('16) 1.1조원 → ('17안) 1.26조원 → ('18목표) 1.5조원

○ 소규모 공동연구를 위한 기초연구실 집중지원('16년 52개 → '17년 75개)과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집단연구지원을 금년대비 131억원 증액

* 집단연구지원사업 : ('16) 1,552억원 → ('17안) 1,683억원

□ 시장과 연계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등 출연(연) 역할 강화

○ 산업기술연구중심 6개 기관의 주요사업 1β 이상 중소기업 협력에 투자

* 출연(연) 중소기업 협력 예산 : ('16) 1,615억원 → ('17안) 1,683억원

※ 6개 기관의 경우 주요사업비의 42.2%인 920억원을 중소기업 협력에 편성

○ 민간수탁 활성화('한국형 프라운호퍼')와 출연(연) 융합연구 활성화를 지원하여 산업계 수요에 맞는 연구 수행과 성과 창출을 촉진

* 민간수탁 활성화 지원사업 : ('16) 264억원 → ('17안) 264억원

□ 「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('16.7)」의 구체적인 실현 및 「과학기술원 혁신비전('15.11)」의 현장착근 지원으로 현장맞춤형 인재 배출

○ 이공계 대학(원)생의 문제해결능력 및 현장맞춤형 전문역량 제고

* 이공계전문기술인력양성 : ('16) 104억원 → ('17안) 211억원

- 현장맞춤형 이공계 인재양성(X-Corps) : 신규 50억원

* KAIST·GIST·DGIST·UNIST 연구 운영비 : ('16) 4,540억원 → ('17안) 4,531억원

○ 과학기술인 연금재원을 확충(100→400억원)하고, 어린이전문 과학관 건립·운영을 통해 국민의 과학마인드 제고

* 과학기술인 사기 진작 : ('16) 172억원 → ('17안) 562억원

* 어린이 과학관 운영 지원(신규) : ('17안) 25억원

- '18년 SW교육 필수화 대비 초중등 SW선도학교 확산(900→1,000개) 및 SW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SW중심대학 확대(14→20개)
 - * SW산업기반확충(초중등 SW교육) : ('16) 186억원 → ('17안) 182억원
 - * SW전문인력역량강화 : ('16) 224억원 → ('17안) 226억원
 - *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 : ('16) 438억원 → ('17안) 496억원

[2] 창조경제 거점기능 강화 ('16) 450억원 → ('17안) 783억원

- 창조경제혁신센터 본격운영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,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플랫폼으로의 도약 지원
 - 혁신센터의 핵심기능인 창업교육, 교류협업, 원스톱서비스 등을 대폭 강화하고,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인적역량 확충
 - *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지원사업 : ('16) 318억원 → ('17안) 472억원
 - 혁신센터를 통한 아이디어사업화, BM(비즈니스모델) 개발, 전문가 멘토링 등을 통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
 - * 6개월챌린지플랫폼 및 엑셀러레이터연계지원 : ('16) 204억원 → ('17안) 241억원
 - 청년의 창업·창직 역량 향상과 창업가와 분야별 전문인력을 연결하는 창·취업 플랫폼으로서의 고용존 기능 확대(신규, 20억원)
- 판교 '창조경제밸리'를 전 세계 유망 스타트업, 투자자가 모이는 글로벌 창업·혁신 허브로 조성
 - 신기술·제품 테스트, ICT-문화 융합 등 새로운 시도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'창조공간(기업지원허브)' 조성
 - * 창조공간 조성 : ('16) 22억원 → ('17안) 198.5억원
 - 해외 투자자·바이어 대상 국내 기업 홍보 및 비즈니스 매칭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유망기업의 글로벌 진출 통로 확대
 - * 글로벌 투자·비즈니스 허브 구축 : ('16) 20억원 → ('17안) 28.6억원

[3] 지역 창업 및 전략산업 육성 ('16) 5,598억원 → ('17안) 6,072억원

- 17개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창업자, 중소기업·벤처기업의 전(全)주기적 창업·사업화·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

- 아이디어 발굴, BM(Business Model) 개발, 시제품 제작, 시장출시 및 해외진출까지 단계별 지원 확대
 - * 혁신센터 연계사업(4개 부처 20개 사업) : ('16) 2,366억원 → ('17안) 2,716억원
 - * (참고) 창업선도대학(중기청, 753→922억원), 대학창업펀드(교육부, 150억원, 신규) 등 관련부처를 통한 지역 청년창업지원 확대 병행

□ **맞춤형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창업 및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극대화**

-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으로 지역별 기술·산업 역량에 맞는 특화 사업을 상세기획하고 맞춤형 집중지원
 - *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지원(신규) : ('17안) 145억원

□ **지역특화산업과 창의적 융복합기술 접목으로 지역산업 고부가가치화**

- 시·도별 주력산업, 시·도간 협력산업 등 지역별 특성 기반 지원
 - * 경제협력권산업육성 : ('16) 1,434억원 → ('17안) 1,456억원
 - *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 : ('16) 587억원 → ('17안) 600억원

[4] 기술사업화 활성화 ('16) 4,466억원 → ('17안) 4,582억원 (※ 중기청 사업 포함)

< 범부처 기술창업·사업화 사업 개요('17안 기준) >

기술창업 촉진		+	기술사업화 및 R&BD지원		
연구소기업 등 창업·이전 활성화 1,922억원	초기기업 성장 지원 펀드 (비예산)1,500억원		ICT기술 사업화 408억원	산업기술 사업화 717억원	중소기업 상용화 1,536억원
미래부 (중기청 포함)		미래부	산업부	중기청	

□ **연구소기업 등 기술창업기업을 확대('17년 200개 이상)하고 대형기술사업화 성공 사례(제2의 콜마 BNH)를 창출**

- 연구소기업 300호 설립('17년 140개 이상), 출연(연)·대학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설립, Star 연구소기업 육성 등을 지원
 - * 연구개발특구육성(미래부) : ('16) 1,090억원 → ('17안) 1,130억원

□ **부처간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등에 대학·출연(연) 우수 기술을 이전 ('17년 6,000건 이상)하여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지원**

- 사업화 유망기술 발굴, R&BD 확대 및 중소기업의 아이디어·기술 고도화를 위해 미래부는 기술이전 집중 지원, 산업부·중기청은 이전 기술의 후속 R&BD 및 기업 성장을 중점 지원

- * 공공연구성과 기술사업화 지원(미래부) : ('16) 359억원 → ('17안) 379억원
- * 사업화연계기술개발(산업부) : ('16) 456억원 → ('17안) 450억원
- * 상용화기술개발(중기청) : ('16) 1,420억원 → ('17안) 1,536억원

- 국가혁신체제 고도화를 위해 신규로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을 집중 육성('17년 1,300개 (누적), 신규 400개 이상)하여 고급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

- 미래부는 新 서비스(시험·분석 기법, BM개발 등) 창출 및 핵심역량 개발을 지원하고,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부족한 R&D 역량 보완을 위해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용을 지원

- * 연구개발서비스업 혁신역량 강화 지원(미래부(신규)) : ('17안) 40억원
- *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지원(중기청(신규)) : ('17안) 52억원

[5] 문화융성 기반 강화 ('16) 1조 6,185억원 → ('17안) 1조 7,491억원

-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주요 인프라 구축 완료

- 첨단문화콤플렉스인 K-Culture Valley(고양), K-pop 상시 공연을 위한 K-pop 아레나(송파) 등 소비·구현공간 조성('17년말)

- * 체조경기장 리모델링 : ('16) 230억원 → ('17안) 237억원

- 현장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문화창조아카데미를 확장·이전하고 교육과정도 확대(청계천, 1개 과정 → 홍릉, 3개 과정, '17.3월)

- *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: ('16) 904억원 → ('17안) 1,278억원

- 융복합 콘텐츠 생태계를 해외와 지역으로 확산

- 국내외 유망스타트업에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국내기업과의 협업 지원
- 지방에 문화벤처단지를 신규 조성하여 지역 콘텐츠 산업의 자생력 강화
- 문화벤처 육성 프로그램 지원 대상 확대(188→400개) 및 법률·회계·마케팅 지원 강화

(1) 중점 지원 분야**① 19대 미래성장동력 조기 성과 가시화 ('16) 1조 2,038억원 → ('17안) 1조 3,004억원**

- 상용화 근접 기술개발과 실증을 위해 19대 분야에 투자 확대(8.3% 증), 특히, 스마트카, IoT, 무인기 등 산업화 속도가 높은 분야* 집중 지원(14.2% 증)

* 산업화 속도가 높은 10대 분야 : ('16) 9,128억원 → ('17안) 1조 423억원

② 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 ('16) 2,253억원 → ('17안) 3,298억원

- 지능정보사업추진단 출범('16.9.1) 및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발표('16.10월 예정) 등 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 체계 구축

- 지능정보기술 R&D 투자 강화 및 인프라조성, 서비스 확산 등 지원을 통해 지능정보사회를 조기 구현

- 지능정보산업 불업 인프라 조성 및 융합서비스 확산 지원

*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(일부) 등 : ('16) 1,144억원 → ('17안) 1,600억원

* 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 및 지능정보서비스확산(신규) : ('17안) 120억원

- 로봇분야 공통기반기술 개발, 유망 로봇품목 상용화 개발과 더불어 인공지능 융합 로봇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

*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: ('16) 722억원 → ('17안) 884억원

- 스마트카·무인기 등 글로벌 무인이동체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

* 자동차산업핵심기술개발(스마트카) : ('16) 272억원 → ('17안) 370억원

* 국민안전감시 및 대응 무인기 융합시스템(신규, 다부처) : ('17안) 98억원

③ ICT융합·혁신을 통한 신산업 육성 ('16) 6,473억원 → ('17안) 6,571억원

- 금년 5월에 발표한 「K-ICT 전략 2016」 이행을 통한 초연결사회 및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성장 산업 육성

- IoT, 빅데이터, 클라우드 등 ICT 첨단기술과 의료, 금융, 교통 등 타 분야 융합을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·실증 지속 지원
 - *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(신규) : ('16) 166억원 → ('17안) 210억원
- 5G 기술 평창 동계올림픽 시연 등 ICT산업 육성 기반구축
 - * 평창 ICT 동계 올림픽 지원 : ('16) 75억원 → ('17안) 114억원
- 웨어러블 디바이스·3D 프린터 등 ICT융합 신산업 핵심 기술개발
 - *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핵심부품 및 요소기술개발 : ('16) 19.2억원 → ('17안) 104.8억원
 - * 전자시스템전문기술개발(3D프린터) : ('16) 80억원 → ('17안) 97억원
- 제조현장에 ICT를 융합한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을 통해 중소·중견기업의 공정 및 생산성 혁신 지원
 - *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: ('16) 124억원 → ('17) 438억원

4 미래성장 유망산업 집중 육성 ('16) 1조 243억원 → ('17안) 1조 1,154억원

- 온실가스 감축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미션이노베이션 추진을 위해 청정에너지분야 기술개발에 27% 증가한 4,571억원을 투자
 - 태양광, 풍력, 수소·연료전지,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의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실증연구 기반 강화로 에너지 공급체계 다양화
 - *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(6개분야) : ('16) 1,410억원 → ('17안) 1,652억원
 - 에너지저장장치(ESS), 전기차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조기 상용화에 성공하고, 미래 신산업으로 적극 육성
 - * ESS기술개발(신규) : ('17안) 421억원
 - * 자동차산업핵심기술개발(그린카) : ('16) 228억원 → ('17안) 331억원
 - 산업공정 개선 및 에너지 효율향상, 온실가스 처리 등 수요관리분야 R&D 투자를 확대하여 산업 전부분의 기후변화 대응능력을 제고
 - *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: ('16) 1,260억원 → ('17안) 1,432억원
- 기업 수요 맞춤형 시스템반도체 설계인력 집중 육성 및 글로벌 시장 수요와 연계한 시스템반도체 상용화 기술개발 추진
 - * 시스템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 : ('16) 40억원 → ('17안) 49억원
 - * 글로벌 수요연계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사업 : ('17 신규) 38.6억원

- 플렉서블·스트레처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기술개발을 통해 세계 1위 지위 수성 및 미래 시장 주도권 선점
 - *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사업 : ('17안) 116억원
- 산업의 융합을 통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견인하여,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조업 소프트파워 지원 확대
 - * 디자인혁신역량강화 : ('16) 420억원 → ('17안) 434억원
 - * 엔지니어링핵심기술개발 : ('16) 120억원 → ('17안) 203억원
- 소재분야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주력산업 고도화 및 대기업-중소·중견기업 간 균형있는 연구개발 역량확보를 지원하고 수요산업(美보잉사 등)과 연계한 수출 동력 확보
 - *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사업 : ('16) 1,204억원 → ('17안) 1,280억원

5] 글로벌 문화·콘텐츠 산업 주도 ('16) 3조 7,443억원 → ('17안) 4조 78억원

- 가상(VR)/증강(AR)현실 등 실감형 콘텐츠산업 지원 확대
 - 유망 신기술 개발 지원, VR/AR 양대 지원 거점(상암DMC/일산빛마루) 연계 운영, 첨단 게임 콘텐츠 제작지원 확대, 콘텐츠 펀드 조성 확대
 - * 가상현실 콘텐츠 산업 육성(신규) : ('17안) 192억원
 - * 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개발사업 : ('16) 275억원 → ('17안) 294억원
 - *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 펀드 조성 : ('16) 360억원 → ('17안) 800억원
- 디지털 환경 및 해외저작권 시장 변화에 대응해 저작권 보호 강화
 - 영상물 침해방지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, 민간주도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 기반구축, 저작권 모니터링단 운영 등
 - * 저작권보호활동 활성화 : ('16) 151억원 → ('17안) 179억원
- 고품격 관광콘텐츠 개발 및 투자활성화를 통해 관광산업 육성 지원
 - 지역별 핵심관광자원(관광지, 숙박, 음식, 특산물 등)을 선별·패키지화 하여 10개 핵심관광지 육성, 한국적 관광콘텐츠 개발 지원
 - * 핵심관광지 육성(신규) : ('17안) 240억원
 - * 한국관광콘텐츠 활성화사업(신규) : ('17안) 194억원

○ **스포츠저변 확대 및 스포츠 산업 지원 강화**

- 英, 獨 축구의 프로-아마 통합리그제(디비전시스템)을 도입하여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합 및 저변 확산 지원(신규 28억원)
- 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해 인력양성, 창업지원, 강소기업 육성 및 지역별 스포츠산업융복합센터(1→2개소) 구축 등 지원(343→533억원)
- 스포츠편드 정부출자 확대로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
 - * 스포츠산업 펀드 조성 : ('16) 200억원 → ('17안) 300억원

⑥ **중점지원분야 R&D 전략적 투자 강화 ('16) 1조 4,451억원 → ('17안) 1조 5,468억원**

- **신약후보물질 개발에 대한 예산을 270억원(81.8%) 증액하는 등 바이오 신산업 분야에 금년대비 10% 증가한 5,215억원 투자**
 - *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: ('16) 1,950억원 → ('17안) 2,616억원
 - *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: ('16) 326억원 → ('17안) 410억원
 - 국내 바이오벤처 창업수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**바이오창조경제 10대 활성화 프로젝트 전격 가동(276억원)**
 - **제품화 수요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지원 및 백신 R&D 활성화를 위한 임상용 및 상업용 위탁생산 전문시설 건립**
 - * 유망바이오IP사업화촉진사업 : ('16) 52.5억원 → ('17안) 100억원
- **시험용 달 궤도선의 본체 부품 국산화 개발 및 예비설계를 위해 달 탐사 사업을 510억원 증액하는 등 독자적인 우주 기술 확보 추진**
 - * 달 탐사 사업 : ('16년) 200억원 → ('17안) 710억원
- **新기후체제에 대비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저감·탄소활용·기후변화적응 원천기술 확대 및 글로벌 기후기술 현지화 지원 사업 신설**
 - * 기후변화대응기술 개발 : ('16) 668억원 → ('17안) 770억원
(글로벌 기후기술 현지화 지원 사업 25억원 포함)
- **나노분야 7대 핵심 공백기술 확보, 차세대 반도체 원천기술 개발, 미래소재 시장 선점 등을 위한 핵심기술 투자 확대**
 - * 나노·소재 기술 개발 : ('16) 442억원 → ('17안) 477억원
 - * 미래소재디스커버리 지원 : ('16) 132억원 → ('17안) 196억원

[2] 국가전략프로젝트

- 국가발전과 성장동력 확충에 직결되고 사회문제 해결에 시급히 필요한 9대 분야 과학기술 프로젝트 추진(신규, 300억원)
 - (성장동력분야) 자율주행차, 스마트시티, 가상증강현실, 경량소재, 인공지능 등 5개 프로젝트(95억원)
 - (삶의질/국민행복 분야) (초)미세먼지, 탄소자원화, 정밀의료, 바이오 신약 등 4개 프로젝트(205억원)
 - *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5개 프로젝트(자율주행차, 스마트시티, 경량소재, 인공지능, 정밀의료)는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
 - (추진방안) 부처간 칸막이를 낮추고 부처 연계·협력 강화를 위해 하나의 신규사업, 범부처 사업단 방식으로 추진(총 12개 부처·청 참여)
 - 기존 사업과 차별화하여 혁신적 기술개발에 집중하고, 신규 프로젝트 베이스(project based) 사업단 체제로 추진
 - 범부처 사업단장(PM)은 최고 민간전문가 선임, 사업관리 전권부여*
 - * 총괄 PM에 과제 기획, 선정, 평가, 예산 배분, 성과 관리 등 권한부여
 - (역할분담) 사업별 기술·시장 성숙도, 민관역량에 따라 전략적 역할 분담으로 효율적 민관 협업모델 적용
 - 민간역량이 높고, 기술이 성숙된 분야는 민간 주도하에 정부는 원천기술, 인력, 법·제도 개선을 지원
 - 민간역량이 낮고, 초기기술 분야는 정부-민간 공동기술개발 추진
 - 국민 삶에 밀접하고 공공성이 높은 분야는 정부주도로 민간 참여 유도

	성장동력 확보		삶의 질
역량	민간역량 ↑, 기술(시장) 성숙	민간역량 ↓, 기술(시장) 초기	공공성 ↑
사업	자율차, 경량소재, 스마트시티	인공지능, 가상증강현실	정밀의료, 바이오신약, 탄소자원화, 미세먼지
전략	민간주도, 정부지원 • 정부는 원천기술, 법/제도 지원	민관협업 • 정부-민간 공동기술개발	정부주도, 민간참여 • 부처간 연계·협업 강화

참고 : 9대 프로젝트 주요내용

성장동력 확보

자율주행차 산업부, 국토부, 미래부, 경찰청 (8년)	자율차(레벨3~4) 핵심부품, 실증기술 확보 8대 핵심부품 ('19) → 자율주행차 융합기술 ('21) → 자율주행차 융합서비스 실증 ('24)	핵심부품 기술수준	77.5% (11) 현재 → 100% (1) '25
경량소재 산업부, 미래부, 방사청 (7년)	경량소재(Ti, Mg, Al, 탄소섬유) 핵심기술 확보 차체용 경량소재(Mg, Al) 합금기술 ('19) → 항공용 소재(Ti) 원천기술 ('20) → 경량소재(Ti, Mg, Al, 탄소섬유) 양산기술 ('23)	해외수출 (경량소재)	15억불 현재 → 310억불 '25
스마트시티 국토부, 산업부, 미래부 (5년)	스마트시티 실증기술 구현, 해외 진출 확대 인프라 연계 시스템 설계('18) → 개방형 운영체계 구축 ('19) → 국내 실증 도시 2개 구축 ('20) → 지능형 의사결정 시스템 개발 및 해외진출 확대('21)	해외수주 비중	10% 현재 → 30% '25
인공지능(AI) 미래부, 산업부, 국방부, 경찰청 (10년)	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술 확보 언어-시각인식 기술 ('17) → 언어-시각 통합지능 AI ('19) → 추론/의사결정 AI ('22)	기술 수준	70% 현재 → 100% '25
가상증강현실 미래부, 산업부, 문체부, 중기청 (4년)	핵심기술 확보 및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디지털 교과서, 평창올림픽 서비스 ('18) → 휴먼팩터 기술 확보 ('19) → 민간주도 컨텐츠 융합서비스 ('20)	국내 시장규모	1.3억불 (세계시장 대비 1%) 현재 → 40억불 (세계시장 대비 5%) '25

삶의 질 향상

정밀의료 복지부, 미래부, 산업부, 식약처 (5년)	정밀의료 기반구축 및 3대 암 정밀의료서비스 구현 정밀의료 통합정보 시스템('18) → 정밀의료 코호트 구축 (~'21) → 3대암 정밀의료 시범서비스 ('21)	세계시장 점유율	시장 점유율 1% (9,330명) 현재 → 시장 점유율 7% (10,330명) '25
바이오헬스 미래부, 산업부, 복지부, 식약처 (9년)	4대 중증질환 대상 글로벌 신약후보물질 확보 신약후보물질 50개 이상 확보 ('23) → 신약후보물질 100개 이상 및 글로벌 신약 3개 이상 확보 ('27) → 글로벌 신약 10개 이상 창출 ('27~)	의약품 수출 규모	2.8조원 현재 → 5.5조원 '25
탄소자원화 미래부, 산업부 (6년)	탄소전환 실증기술 확보 및 온실가스 감축 부생가스 전환 및 CO ₂ 광물화 실증 플랜트 ('17) → 공정 최적화 (~'22) → 해외 기술이전 모델개발 ('22)	온실가스 배출량	9,000만톤 '25 → 8,250만톤 '25 현재
미세먼지 미래부, 환경부, 복지부, 산업부, 기상청 (7년)	미세먼지 생성원인 규명, 선진국 수준의 관리시스템 구축 생성원인 과학적 규명, 저감기술 ('19) → 대형사업장 실증 ('20)	미세먼지 농도 (전국평균)	26 μ g/m ³ 현재 → 18 μ g/m ³ '25

3 향후 조치계획

- 미래성장동력 창출 예산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면,
 -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전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본격적으로 추진
 - '17년 예산 집행과정에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미래성장동력 창출 성과를 최대한 확대해 나갈 계획